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mailto: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mailto:achristo@umcnic.org)

Kor Monday Morning Video: May 11, 2020

제 책장에 붙어 있는 존 로날드 로웰 톨킨의 저서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프로도가 “이런 일이 내생애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간달프가 “나도 그러기를 바래” 라고 동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랬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는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 뿐이었다...” 이라는 내용의 mim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상황에서 -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교회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이 영화의 대사를 볼때 마다 우리 또한 리더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간달프가 프로도에게 용기를 주면서 또한, 스스로 자신에게도 다짐하는 말처럼: 저도 우리의 할 일은 주어진 이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것이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달프의 대사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심은 받은 모세의 반응을 상기 시켜줍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라는 부름심을 받아 “제가 말이 어눌해서요’ 라는 변명을 포함해서 여러 이유를 대며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신원조사를 했다면 [Background Check]를 통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인을 죽이고 광야의 뒷 편에서 숨어살았으니까요.

그가 감당 하여야 할 일은 모세나 그의 형 아론이 알고 있던 것 보다 더 광대 하였습니다. 때때로 감당 하여야 할 일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있고 영리하고 창조적이어도 사람이 상상이 안될 정도로 크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됩니다. 이 큰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감당 할 수 있도록 훈련 또한, 시켜주셨습니다.

첫번째 가르침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첫번째 가르침, 레슨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두번째 가르침으로 연결이 됩니다: 과거의 리더십 모델은 더이상 적용이 안됩니다. 모세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멀리 광야로 불러내서 바로군대로부터 더이상 위협받지않을 만큼 왔을 때에 모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 보냈던 가족들을 그에게 다시 보냅니다. (저는 늘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사람 찾는 앱도 없었는데 어떻게 모세를 찾았을까요 ... 궁금합니다.)

어떻든지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모시고 하루종일 백성을 재판하는 장소로 갑니다. 모세는 재판을 받으려고 길게 줄 선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판결을 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장인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하지만 이드로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이런식으로 일하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으며 :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이고 ... 이 일을 혼자서는 할 수는 없다고 ”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도와줄 새로운 조직을 세웁니다. 성경의 행간을 잘 살펴 보시면 모세가 일하는 방법은 이집트에서 배운 조직력을 광야의 삶에다 적용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가 실시한 피라미드식 방법은 이집트에서 하던대로 상명하복방식을 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좀 더 공동 위원회나 협력위원회의 같은 형태의 지도력을 제안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 우리가 교회건물로 조심스럽게 다시 돌아올 때에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책임있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이모든 결정을 혼자 하지 마시고, 평신도들 또한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를 리더쉽의 세번째 가르침으로 이끌어 줍니다 :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여러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나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반석에는 미네랄이 묻쳐서 물을 막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 올랐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반석을 칠때 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지를 보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여서, 명령을 따르지않고 말대신 한번이 아니라 두번씩이나 반석을 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믿음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따르지않은 모세를 벌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면서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야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미 이전부터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헌금같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고 , 그



교회들은 이런 상황을 잘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싫어 했던 방법이었던더라도 - 변화가 없으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오늘날을 위한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일까요? 다른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으로 부터 멀리 도망을 갔다가 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나입니다.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 늘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끝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몇가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사람들이 그의 나쁜 에너지를 없애기 위하여 그를 바다로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그가 니느웨에 갔을 때 혼자였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미션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라도 바르게 일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처럼 된다면 우리가 성공은 할 수 있어도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가장 좋은 베스트 타임에도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불평과 고통의 신음 소리와 갈등과 불안이 넘치는 교회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리더들이 교인들에게 미소를 짓게 할 수 없다면 - 심지어 때에 따라서 큰 웃음을 선사 하지 못 한다면 - 그들의 “성공” 은 없어질 것입니다. 기쁨은 비록 긴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우리들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기쁨 이야말로 밖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목회자와 평신도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 할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 안에 살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협력하며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왜 존재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 돌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커뮤니티와 세상도 돌보십시오.

왜 (Why), 어떻게(How) 그리고 무엇(What)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기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